

# 헌법재판소 별관

## 권위의 장벽을 내리고 소통의 장을 세우다

### 김복지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소장

###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번지)
용도	공공업무시설(도서관)
대지면적	16,808.60m <sup>2</sup>
건축면적	1,362.21m <sup>2</sup> (별관)
연면적	7,593.92m <sup>2</sup> (별관)
규모	지하 3층, 지상 2층
높이	11.86m
건폐율	8.10%
용적률	15.08%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	김복지, 김동욱a(유선), 김동욱b(현신)
설계담당	이진나, 박중현, 이동주(유선), 박유선(현신)
유구전시관 자문	안창모(경기대)
시공	성도토건(주)
설계기간	2015. 10.~2017. 9.
시공기간	2017. 12.~2020. 4.
공사비	약 199억 원
건축주	헌법재판소



담장이 사라진 헌법재판소 별관





‘담장을 허물고 국민 곁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난 헌법재판소





© 2014 2015



© 2014 2015



© 2014 2015

상 북측 전경  
하 북촌로변 전경





© 2014  
P&H



© 2014  
P&H

© Yoon Joonhwan

상 별관 1층 주출입구  
하 옥상정원





상 지하 1층 전시실  
 하·좌 1층 도서관  
 하·우 1층 북카페



권위의 상징이었던 헌법재판소는 보안을 이유로  
높고 두꺼운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굳건하던 담장을 허물고 가려져 있던 낮을 드러냈다.  
그리고 도로 가까이에 별관을 새로 지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별관의 도서관, 민원실, 북카페, 옥상정원, 전시실 등을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개방했다.



© 2019  
헌재

## 헌법재판소와 탈권위적 공공건축

한국 사회에서 법치의 상징인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모두 그 위상을 실감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역사는 생각만큼 길지 않다. 1988년에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던 때였다. 1993년에 지금 위치에서 모습을 드러낸 헌법재판소는 질서정연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건축으로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었다. 법령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지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법 위의 법’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건물 역시 합리적이고, 엄정하고, 냉철한 이미지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의미를 드러낸다.

시간의 흐름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헌법재판소는 보안을 이유로 높고 두꺼운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굳건하던 담장을 허물고 가려져 있던 낮을 드러냈다. 그리고 도로 가까이에 별관을 새로 지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별관의 도서관, 민원실, 북카페, 옥상정원, 전시실 등을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개방했다.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국내 최대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 법률 관련 자료 등 약 16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연구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시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알리면서 우리 삶에서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민원실은 접근성을 높였다.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던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개방적인 공간, 누구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탈권위적 공공건축의 사례가 되고 있다.

## 두 가지 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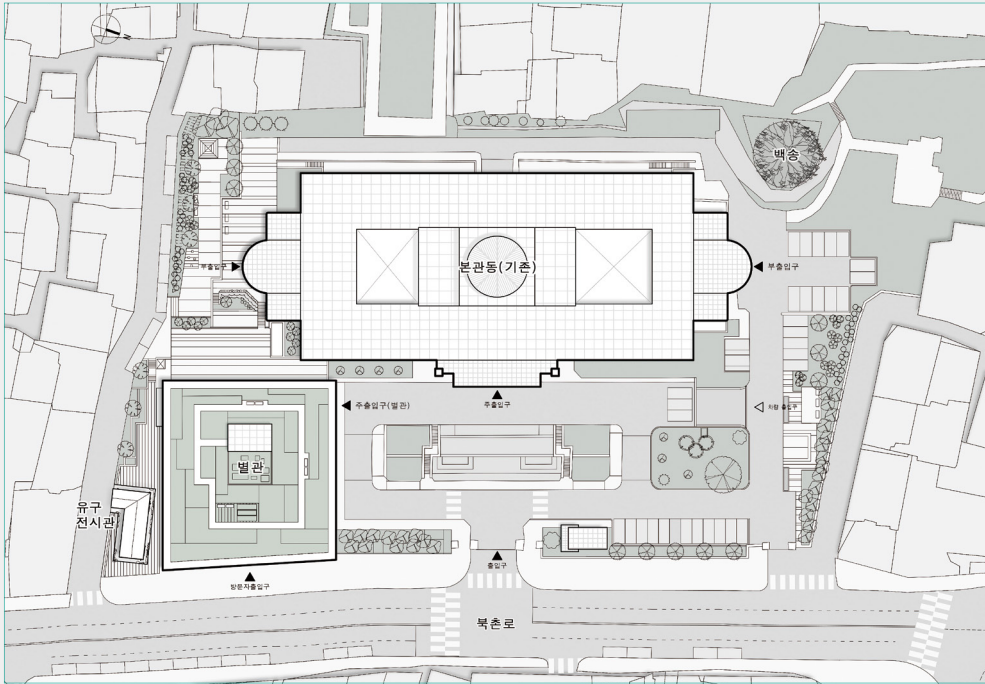
별관을 설계하면서 무엇보다 본관과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새로 들어서는 별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본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도록 구상하고, 별관이 본관을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 거리를 두고 배치했다. 기본적으로 본관이 주역, 별관이 조역으로 보이도록 했다. 더불어 소규모 저층 주거지인 북촌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부피를 작게 만들었다. 또한 본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한 만큼 본관의 이중 복도(double corridor) 동선을 1층과 지하 1층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 헌법재판소



상 1980년 전경  
중 2000년 전경  
하 2020년 전경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배치도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조감도(현상설계안)

그러나 본관의 위상을 최대한 존중하고, 본관과 별관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려고 한 의도는 처음 실행할 때부터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다. 현황 측량 결과 별관이 들어설 장소의 폭이 당초 자료보다 5m 이상 좁았다. 이로 인해 본관 남측에 두려 한 연결공간이 1층과 지하 1층에서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는 본관과의 다각적인 연계 동선 구축, 본관과의 간섭 최소화 등 당초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었고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다.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제한이 16m 이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구청의 높이 제한 강화 지침에 따라 12m 이하로 낮아지면서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층수 변경을 넘어서서 연관관계의 변경이 수반되기에, 또다시 본관과의 연계기능과 동선 모두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그 결과 바닥은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져야 했지만, 본관과 연계하면서 외부와 소통하려는 원안의 주요 의도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 본관과 별관의 기능 연계

본관 5층 도서관의 수장고가 넘치고, 사무공간의 부족을 해소해야 하는 기능적 필요에 따라 도서관을 이동 배치하고, 민원실 등 업무공간을 확충하면서 기존 주차장과 연계하는 게 별관의 주요 기능이 됐다.

본관이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본관과 별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외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층별 구성과 영역 구분이 중요했다.

본관 1층에는 법정과 강당 등 공용시설이 있고, 2층부터는 업무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직원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상 1층에서는 외부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에서는 연결 복도와 주차장을 통해 본관과 별관이 연계된다. 외부 방문객은 북촌로 변에서 지하 1층으로 직접 출입하게 돼 지하 1층이 동선 연계의 핵심공간이 된다. 외부 방문객 동선과 본관으로부터 연결된 내부 직원의 동선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별관의 지상 2개 층이 도서실이고, 지하에는 보존서고와 주차장이 배치돼 상부층과 원활한 기능 연계를 이룬다.

© 2014 K&A



상 북측 전경  
하 북촌로변 전경



### 개방을 통한 주변 환경과 관계 맺기

헌법재판소 별관은 중앙 코어를 두고 4면을 개방하는 형태로 각기 다른 주변 환경과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먼저 동측은 주도로에 대면하여 북촌을 오가는 보행자와 방문객을 맞는다. 지하 1층은 로비를 중심으로 전시실과 민원접수실이 배치되고, 그 안쪽으로 직원 업무실과 다목적실 등 본관과 연계한 공간들이 자리한다. 여기서는 헌법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등 전시물을 통한 소통을 도모한다. 도서실이 위치한 1층과 2층은 어린이 열람공간과 서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북측은 본관과 함께 전면의 계단식 분수마당을 감싸며 멀리 북한산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품는다.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면 북촌 일대와 북한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1층은 본관과 연결된 도서관의 주출입홀과 북카페를 통해 아래 위 층이 연결될 뿐 아니라 서측과 남측의 후정이나 선크마당, 북촌의 한옥 주거지와 대면하게 된다.

### 존중과 변화의 조화

헌법재판소는 본관 설계 당시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자’라는 무게감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외형의 옷을 입는 게 합당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화와 비례를 중시하는 서양의 고전양식으로 지은 육중한 석재건물이 안정적이고 엄중한 이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했을 듯하다. 그 후 시대정신이 바뀌어 탈권위주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건물의 재해석도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를 처음 세울 때는 장벽을 두르고 권위를 강조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문을 열고 소통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다.

기본적으로는 본관의 질서를 좇고 있지만, 별관의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 정형은 아니다. 동측 면은 전면가로에 대응한 사선 형태이고, 각 모서리를 최대한 열어놓고 벽면의 프레임 깊이에 변화를 주어 섬세한 한옥의 처마선을 표현한다. 기존 청사의 열주 형상 수직 패턴을 적용하면서도 전면의 계단식 분수와 함께 엄격한 대칭을 유지하고 있는 본관에 다소 변화를 가미한 배치와 구성으로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상 1층 도서관  
중 1층 북카페  
하 지하 1층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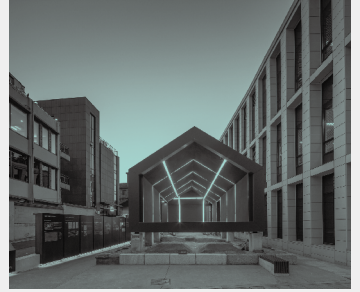
## 새로운 유구 보존, 전시 방안을 찾다

건물을 짓기 전 매장 문화재 조사를 하다 쫓겨간 역사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중 능성위궁 별채 유구와 옛 학교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잖아도 협소한 부지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난관이 등장했지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시각의 전환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초가 된다. 불쑥 등장한 것 같지만 결코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새것이 나오면 이전 것이 어땠는지는 금세 잊어버리던 망각의 시대에서, 이제는 새것과 옛것이 공존하는 가치를 찾는 시대다. 주초 몇 개와 적심들 그리고 기단석 일부 등이 발견됐는데, 문화재청에 자문해 이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시하고 싶었다. 한동안은 원형 보존의 원칙 아래 유구를 유리관으로 덮고 그 위에 다시 한옥 지붕의 보호각을 세우는 것으로 균일화돼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유구들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는 것으로서, 파편들로 발견된 흔적 그대로를 보는 것 이상의 시각적 감흥을 주기는 쉽지 않다. 다양한 미디어와 시각적 메시지에 익숙해진 시대인 만큼 공간 전시 영역에서 조금의 상상력을 추가하고 싶었다. 우선 남은 것을 통해 사라진 것을 추적해 보았다. 그것은 시대와 형식을 감안한 대략의 원형을 추정할 근거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사라진

© 2021  
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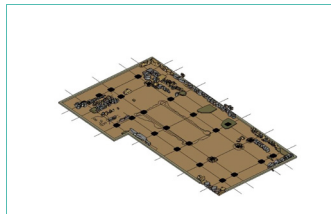


유구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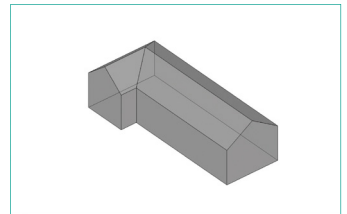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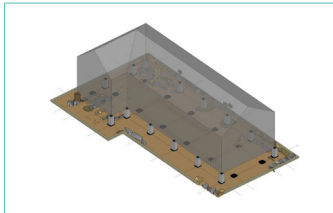
유구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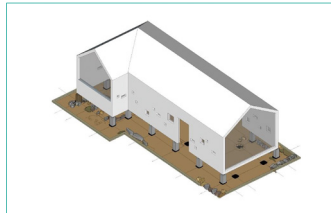
가옥 구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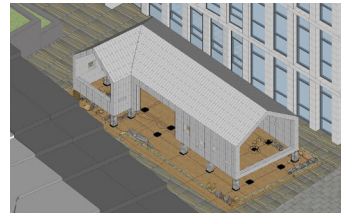
가옥 형태의 매스구성



기단부 및 구조체 형성



외피 계획



주변과 연계

유구전시관 계획과정





© 2019  
F&T  
128



상 별관 1층 주출입구  
하 옥상정원

상부구조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전시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본 개념은 기단과 상부구조를 구분한 다음 기단석들을 이은 기단부는 관람자가 발을 디딜 수 있게 하고, 상부구조는 단일 마스크의 외피 형태로 만들어 내외부를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가급적 실체에 대한 경험에 가깝게 하는 것이었다.

상부구조의 형태는 최대한 추상적으로 제시해 관람자로 하여금 상상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구조적으로는 기존 주초와 적심들의 원형을 보존 유지하고 사라진 주초 위치에 새로운 주초를 형성해서 그것들로 상부구조를 지지하게 했다. 구조물의 내벽에는 기둥 위치에 선형의 홈과 조명을 두어 한옥의 ‘간’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관람자의 시선에서 유구의 관찰이 쉽도록 측단부와 대청 쪽을 개방했다.

재료는 징크판을 사용했는데, 이는 북촌의 지역성을 감안해 기와색에 가장 가까운 것이어서 선택했다. 다만 당초는 물성을 고려해 테라코타 판재를 선택했으나 현장 상황에 의해 변경되었다. 협소한 대지에 별관과 유구전시관이 공존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의외의 조합이 오히려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상생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 새로운 소통의 가치를 품은 공간을 기대하며

본관이 들어선 지 30년 가까이 지난 2020년에 새로 모습을 드러낸 별관이 준공될 때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다가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뜻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아직도 그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워드 코로나 국면에서 대중과의 접촉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게 될 듯하다.

대한민국 역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땅에서, 그 흔적들을 품고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공간의 일부분으로서, 또 한 번의 변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남다른 공유와 소통의 가치를 느끼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